

인 사 말

수행과 포교 그리고 종단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중앙종회 의원스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경인년 동안거 용맹정진이 끝나고
생명이 약동하는 경칩도 지났습니다. 제방
선원에서 수행에 매진했던 스님들이
포교와 가람수호의 현장에서 결계대중
스님들과 함께 정진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제33대 집행부는 지난 1월 12일
‘종단 4개년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종단 내외에 발표하였습니다.

종단의 운영이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집행되고 성과와 과제에 대해 올바른
평가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종책과
제를 종도들과 공유할 때 가능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부족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4개년 발전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4개년 발전계획’은 종단발전위원회와
교구본사주지회의 그리고 중앙종회 등

에서 다양한 의견수렴과 보완을 거쳐 지속적으로 수정될 것입니다. 종회의원 스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금번 제183회 중앙종회에 집행부에서는 몇 가지 중요한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먼저, 불기2553년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결산과 불기2554년 중앙종무기관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핵심 주요과제 추진을 위한 종법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불기2554년 추가경정예산안은 ‘4개년 발전계획’ 수립으로 인한 신규사업과

수익사업을 위한 ‘본·지점특별회계’의 필요성 때문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분담금은 증액하지 않고 예비비와 전년도이월금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종법개정안으로는 토지처분금의 전용을 방지하고 포교 등의 목적사업에 집중하기 위한 사찰부동산관리법, 말사주지 자격의 보완과 초임주지연수교육을 명시한 종무원법, 신도교육과 조직을 강화하기 위한 신도법과 종단교무금납부예관한법 등을 상정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 상정한 안건들의 취지를 널리 살피시어 총회의원 스님들의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 상정된 안건이 원만히 처리되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종단에는 많은 과제가 있습니다. 과제 해결을 위해서는 관련된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며 소요되는 자원의 마련 그리고 추진인력과 조직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과제해결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조직구성원 즉 종도들의 생각과 마음이 모아지는 것입니다.

종도들의 마음이 모아진다면 못할 일이 없으며 어려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4개년 발전계획 중 일부 종책과제와 2007년 중앙종회의 승려법 개정에 따른 ‘승려 사유재산의 종단 출연에 관한 령’ 시행에서 종도들의 이해와 공감에 부족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홍보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과정을 통해서 종도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확인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총무원 집행부가 종도들과 소통하는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단위는 바로 중앙종회입니다.

33대 집행부는 중앙종회와 긴밀히 소통하기 위해서 ‘종단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매월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종단의 현안문제와 중장기 과제에 대해서 중앙종회의 상임분과위원회와 종책모임 등 다양한 형식으로 중앙종회와 소통하고 지혜를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3대 총무원은 11대 핵심과제와 25개 주요과제에 대한 추진성과에 따라 평가받게 되었습니다. 화려하고 멋진 정책을 선언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박하지만 종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종무행정 집행과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중앙종회의원스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불기2554년 3월 8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